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LENS INSIGHT / No.14

NVIDIA · 한국 AI 인프라 · 공급과 투자 회수

엔비디아 CEO 교체의 파장

한국의 GPU 26만 대 확보 계획은 흔들릴까

공급 약속·계약 실행·가동률·투자 회수의 연결

공급
유지된 약속, 실행 중인 계약

가동
장비에서 사용 가능한 연산으로

회수
첫 가동과 반복 가치의 시차

약속은 이어진다.
성과는 가동 시점과 투자 회수가 가른다.

26만 대 총량을 계약·시설·고객·현금으로 나눠 한국 AI 인프라의 다음 단계를 분석한다.

분석 기준일 2026.11.14

TRADELENS.KR

산업구조·계약 실행·자본효율 분석

01 / RESEARCH VIEW

공급 약속의 연속성과 투자 성과는 별개다

TradeLens 판단 | 리더십 충격보다 사업별 실행의 성숙도가 결과를 가른다.

핵심 결론

공식 발표와 정부의 재확인에 비춰 CEO 교체만으로 한국의 GPU 공급 계획이 전면 철회된다고 볼 근거는 약하다. 다만 26만 대는 다년간 공공·민간 계획의 규모이며 납품·가동 실적이 아니다. 사업별 계약 이행, 전력·시스템 통합, 반복 수요와 투자 회수를 함께 봐야 하며, 기본 전망은 일괄 중단보다 가동 시점과 경제성의 차별화다. [1] [2] [3]

공급

회사 약속과 주문·인도 조건을 구분한다.

가동

입고 장비가 실제 서비스로 전환되는 시점을 본다.

회수

사용량이 아니라 비용 차감 후 가치로 평가한다.

한국 사업은 한 명의 경영자가 직접 수행하는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다. 공공 컴퓨팅, 제조기업의 내부 활용, 상업용 클라우드는 구매자·예산·현금 회수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국가 총량보다 사업별 계약 단계와 설치 여건을 비교하는 편이 유용하다. [4] [5]

이번 변화가 중요한 이유

개인적 관계에 집중된 기대가 회사 차원의 실행 통제로 옮겨갈 수 있다. 기존 고객의 납품을 유지하는 선택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후속 투자·지원조건을 다시 심사하는 선택은 동시에 가능하다. 이는 조건부 분석이며 새 경영진이 투자 축소를 결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판단을 바꿀 증거

공급 취소·할당 축소·확정 일정의 반복 지연은 연속성 판단을 약화시킨다. 반대로 실제 검수·서비스 개시·유상 재주문은 공급 약속을 경제적 성과로 뒷받침한다.

02 / EVENT & EVIDENCE

사임은 사실, 한국 사업 철회는 별도 판단이다

공시상 사건일·회사 발표일·정부 설명일을 분리한다.

시점	확인된 내용	해석 범위
11월 11일	이사회가 젠슨 황의 사임 수락. 콜레트 크레스 임시 CEO 선임. [1]	공시상 사건일. 정식 후임 인선 완료와 다르다.
11월 12일	회사가 경영진 교체 발표. 고객 약속·제품 로드맵의 연속성 강조. [2]	회사 방침이다. 개별 계약 이행의 완료 증거는 아니다.
11월 13일	한국 장관이 엔비디아와 GPU 공급·협력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 [3]	정부 설명을 인용한 보도. 납품·가동의 실적표와 구분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업에 전해지는 세 경로

의사결정
후속 투자·지원의 승인 속도

›

거래조건
선급금·담보·배정 우선순위

›

고객 수요
최종 구매자의 증설·서비스 구매

경영진 교체는 협력 창구와 자본배분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조직·개발인력·제조 공급망이 같은 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영진에 관한 우려를 공급 중단으로 연결하려면 주문 수정이나 납품 차질이라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보고서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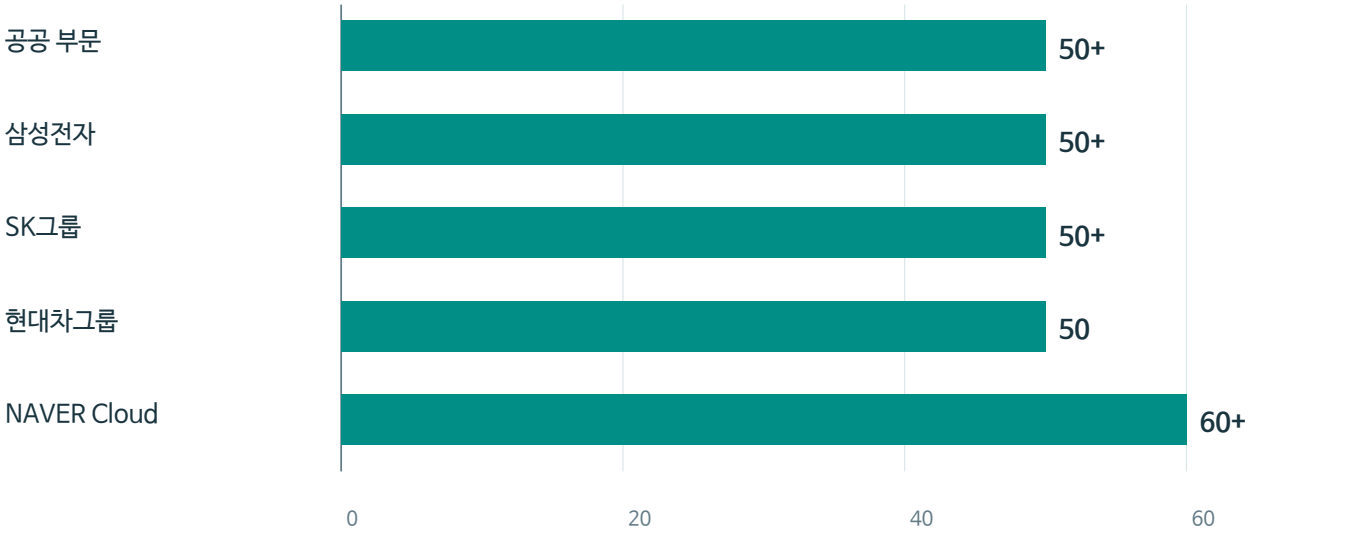
사임 배경에 관한 개인적 의혹이나 주가 급락을 공급 차질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분석 대상은 한국 사업의 계약·일정·자본 회수이며 목표주가나 매매 판단은 다루지 않는다.

03 / THE 260,000-GPU BASELINE

26만 대는 하나의 주문서가 아니다

2025년 발표된 다년 계획의 구성을 복원한다. 현재 가동 자산의 집계가 아니다.

2025년 공표 규모의 기준선 [4]



천 GPU

회사 발표의 “이상” 표현을 보존했다. 제목의 26만 대는 발표 계획을 가리키며 확정 구매계약 총량이나 동일 기종의 납품량이 아니다.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운영사와 민간의 자체 계획에 같은 회사 이름이 등장하므로 운영사 이름을 기준으로 재합산하지 않는다. [4] [5]

부문	경제적 목적	성공을 판정할 지표
공공	연구·모델 개발 접근성	대기시간·프로젝트 완료·자원 배분
제조기업	설계·공정·제품 경쟁력	품질·개발주기·실현 절감액
상업 클라우드	외부 고객에 연산 서비스	유상 이용률·단가·재주문·현금

총량보다 계약 단위

기업별 계획·공공 조달·연구 장비를 같은 시점의 전력수요나 HBM 매출로 환산하면 범위가 뒤섞인다. 발주 주체, 기종, 인도 일정과 자산 소유자를 먼저 맞춰야 한다.

04 / PUBLIC DEPLOYMENT

공공 5만 대도 확보·입고·가동을 나눠야 한다

11월 13일 정부 설명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 기준. B200 기준 규모다. [3]

공공 확보 계획의 진행 구분



확보 설명 2.1만 | 2027년 초 입고 예정 1.4만 | 센터 경로 1.5만

천 대 / B200 기준

구분	공표된 단계	주의할 해석
직접 확보 3.5만	2.1만 규모 확보, 나머지 1.4만은 2027년 초 입고 예정.	확보라는 표현만으로 전량 설치·사용 가능하다고 계산하지 않는다.
센터 경로 1.5만	국가AI컴퓨팅센터를 통해 확보 추진.	직접 확보 물량과 같은 입고일·사업구조로 합치지 않는다.

60%

2.1만 ÷ 3.5만. 직접 확보 목표 대비 설명된 확보 규모의 비율.

미제시

이 자료만으로 26만 대 전체의 납품률·서비스 가동률은 산출하지 않는다.

정부 설명은 가까운 인도 물량의 연속성을 평가하는 근거다. 다음 확인 대상은 통관·검수 시점과 클러스터별 서비스 개시다. 장비가 서로 다른 사업자에 배치될 경우 같은 1만 대라도 하나의 대규모 학습작업에 묶어 쓸 수 있는지는 별도의 네트워크·운영 문제다.

공공 자원의 가치

목적이 연구 접근성 확대라면 수익 매출만으로 성과를 판정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시간과 실제 과제 수행률을 보지 않은 단순 보유량 증가는 정책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05 / CONTRACT MATURITY

계획에서 계약과 고객 확보로 넘어간 사업도 있다

네이버 사례는 7월의 조건부 발표만으로 현재 상태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다.

시점	공개된 진전	남는 판단
2026.07.24	NVIDIA 지분투자 계획과 Brookfield 자금조달 선결조건 제시. [10]	당시 조건부 발표와 완료된 투자를 구분.
2026.10.27	NAVER가 90억 달러 인프라 확보 계약과 선결조건 충족 발표. [11]	계약 체결이 모든 장비의 인도·가동을 의미하지 않음.
2026.11.12	회사 발표: 2조 원 규모 초기 고객 확보, 2027년 상반기부터 매출 반영 계획. [12]	계약 총액을 한 분기 매출·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음.

자본·자산
자산 보유 SPV / 인프라 조달
›
운영
NAVER Cloud / 서비스 제공
›
수요
고객 계약 / 사용·대금 지급

10월 발표상 Brookfield가 자산 보유 법인을 통해 인프라를 마련하고 운영사에 연산 능력을 제공한다. 이는 자금과 운영의 역할 분담이다. 외부 자본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사의 장기 구매의무나 연결 재무 부담이 없다고 결론낼 수는 없다. [11]

초기 55MW에서 2028년 200MW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단계별 일정이다. 초기 고객을 확보한 사업과 아직 고객·자금·시설을 더 마련해야 하는 후속 용량은 위험이 다르다. 장기 인프라 계약 총액을 당기 지출이나 해당 기간의 서비스 매출로 단순 치환하지 않는다. [10] [11]

경영진 교체의 영향을 읽는 방식

이미 진전된 계약을 과거의 단순 의향 단계로 되돌려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최종 집행·인도·서비스 개시와 다음 확장 단계의 승인조건을 나눠 점검한다. 고객 확보는 긍정적이지만 적정 가격과 비용 통제가 함께 필요하다.

06 / WHAT LEADERSHIP CAN CHANGE

기존 납품보다 후속 의사결정의 조건을 본다

경영진 교체의 잠재 영향 경로에 대한 TradeLens 분석. 변경 확정 사실이 아니다.

계층	변화가 전이될 수 있는 지점	실제로 확인할 증거
기존 고객 공급	영업·물류·서비스의 연속성	확정 인도일·검수 물량·고객 공지
후속 증설	차기 기종·공급 순서·공동투자 승인	정식 계약·발주서·자본 납입
위험 부담	담보·보증·대금 지급·최소 구매 약정	계약조건 수정·충당금·약정 공시
기술 협력	공동개발 인력·일정·인증의 우선순위	시험 통과·출시·제품 지원 일정

회사가 밝힌 고객 약속 유지 방침은 기본 판단의 출발점이다. 그렇다고 향후 모든 투자 조건이 불변이라는 뜻은 아니다. 기존 주문을 실행하면서 신규 공동투자에는 더 높은 수익성 기준을 적용하는 조합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2]

한국 프로젝트가 모두 같은 충격을 받지는 않는다

자금이 확보되고 시설과 고객이 준비된 사업은 추가 승인 의존도가 낮다. 반대로 후속 출자·발전 또는 전력계통 연결·신규 고객 유치가 동시에 필요한 사업은 하나의 결정 지연이 다른 단계로 번질 수 있다. 이 분류는 사업명을 기준으로 낙관·비관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태를 기준으로 한 위험 구분이다.

같은 공급 일정이라도 위험 부담이 바뀌면 사업의 경제성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이른 대금 지급이나 더 강한 최소구매 약정은 공급 취소 없이도 구매자의 자금 부담을 높인다. 이 경우 검토할 대상은 장수의 감소가 아니라 계약의 현금 시차와 손실 부담이다.

> **의사결정의 기준**
>
> 개인의 기술 비전이나 재무 성향만으로 새 경영진의 전략을 예단하지 않는다. 기존 약정의 이행과 새 프로젝트의 승인조건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관찰한다.

07 / FROM DELIVERY TO SERVICE

납품일이 빨라도 서비스 시작이 늦을 수 있다

장비·시설·자금·소프트웨어 일정은 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다린다.

01 발주
기종·물량·납기

›

02 자금
선급금·지급조건

›

03 입고
통관·검수

04 시설
전력·냉각·통신

›

05 통합
성능·보안·운영

›

06 활용
고객·연구·대금

병목을 보는 간단한 식

서비스 개시시점 ≈ max(장비 준비, 시설 준비, 자금 조건 충족) + 통합·검증 기간. 설명용 일정 모형이며 개별 사업의 실제 공정표는 아니다.

공급자가 예정대로 출하해도 전력 인입이나 네트워크 검증이 늦으면 가동은 지연된다. 반대로 시설이 준비돼 있으면 GPU 인도 일정이 주된 제약이다. 모든 단계에 같은 지연개월을 더하면 서로 병행되는 공정을 중복 계산하게 된다.

관측되는 변화	추가로 물어야 할 질문
GPU 입고 증가	어느 클러스터가 검수·서비스 개시를 완료했는가?
전력 용량 확보	실제 인입·수전·냉각 준비가 끝났는가?
수주 또는 예약 확대	매출 인식 조건과 서비스 미제공 시 책임은 무엇인가?

NVIDIA의 기술문서도 GPU 외에 CPU, 스위치, 저장장치, 네트워크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구성으로 다룬다. 장비 수급과 서비스 품질을 같은 지표로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13] [14]

실행 지표의 전환

확보 장수보다 “검수 완료 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시간”을 병행 공개해야 납품 지연과 운영 지연을 구별할 수 있다.

08 / NOT ALL GPUs ARE EQUAL

장수만 맞춰도 연산 능력은 같아지지 않는다

B200 기준 공공 수치와 서로 다른 기종을 포함한 민간 계획을 혼합하지 않는다.

비교 항목	DGX B200 시스템	RTX PRO 서버 예시
GPU 구성	B200 8개	RTX PRO 6000 Blackwell 8개
총 GPU 메모리	1,440GB	768GB: 96GB GDDR7 × 8
시스템 성격	가속 연산·NVLink 연결 시스템	기업 AI·시뮬레이션·시각 컴퓨팅
적합성 판단	모델 규모·병렬화·통신 패턴	추론·그래픽·업무별 검증

공식 사양 예시이며 특정 한국 프로젝트의 확정 구성이나 성능 우열을 뜻하지 않는다. 같은 Blackwell 계열이라는 이유로 GPU 한 개의 처리량·메모리·전력을 같게 놓지 않는다. 메모리 용량도 애플리케이션 처리성능 그 자체는 아니다. [13] [14]

학습

목표 품질까지 걸리는 시간, 모델 규모, 장애 복구

추론

지연시간 기준을 지킨 처리량과 토큰당 총비용

제조

검증된 품질·설계시간·공정 개선의 경제적 효과

고객에게 유용한 연산은 칩의 이론 성능이 아니라 필요한 정확도·지연시간·보안을 충족한 결과물이다. 비교 실험의 모델·정밀도·배치·네트워크가 다르면 성능 숫자의 단순 비율은 실무상의 대체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 **한국 확보 계획의 평가 단위**
>
> 서로 다른 GPU를 하나의 장수로 관리하되, 용도별 서비스 수준과 단위 결과물 비용을 함께 표시해야 공급 전략 변경이 실제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09 / PHYSICAL READINESS

GPU는 확보해도 전력·통신·냉각은 남는다

1,000 GPU의 단순 예시로 장비 준비와 시설 준비의 차이를 보여준다.

8 GPU
DGX B200 1대의 GPU 수 [13]

14.3kW
DGX B200 1대의 최대 시스템 전력 [13]

125대
1,000 ÷ 8, 설명용 구성

계산 단계	설명용 결과
서버 최대 전력	125 × 14.3kW = 1.7875MW
시설효율 가정	PUE 1.30 적용 → 1.7875 × 1.30 = 2.32375MW
추가 검토	외부 스위치·스토리지 등 추가 IT 부하, 예비용량·실제 부하 패턴

PUE는 시설 전체 전력을 IT 전력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는 서버만 IT 부하로 둔 단순 모형이므로 2.324MW를 실제 센터의 완성 설계치로 쓰면 안 된다. 최대 사양은 평균 소비전력이 아니며, 이를 8,760시간과 곱해 실제 전기료를 단정하지 않는다.

왜 26만 대 전체의 전력을 역산하지 않는가

기종·서버 구성·배치 시점·시설효율이 서로 다르다. B200 예시를 전국 물량에 곱하면 고성능 GPU의 비중과 후속 플랫폼 변경을 무시하게 된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숫자는 특정 구성의 시설 준비 규모를 생각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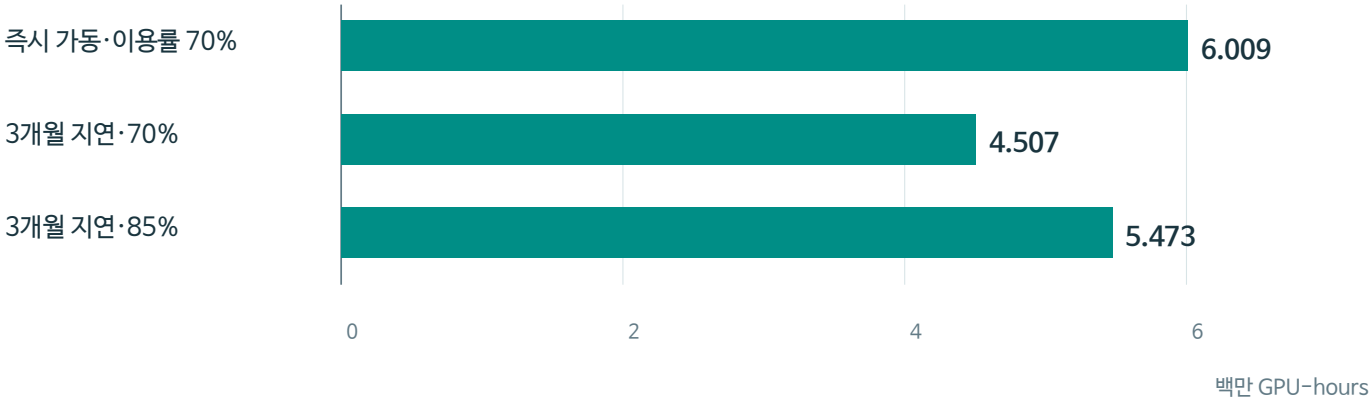
> **CEO 교체와 구분할 운영 위험**
> 수전·냉각·네트워크 시험은 리더십과 무관하게 해결해야 하는 실행 조건이다. 공급 약속이 유지돼도 이 단계가 지연되면 연구·서비스 시작일과 자본 회수가 늦어진다.

10 / TIME & UTILIZATION

세 달의 지연은 같은 장수의 가치를 줄인다

설명용 모형 | 1,000 GPU·연 8,760시간·가용률 98%, 기종과 업무는 같다고 가정.

첫해 실제 활용 GPU-hours



계산식: 1,000 × 8,760 × 가동연수 비중 × 98% × 이용률. 3개월은 1년의 25%로 단순화했다. 이용률은 가용시간 중 실제 작업에 배정된 비율이며, 임대수익이나 학습품질을 의미하지 않는다.

첫해 개시 지연	이용률 50%	이용률 70%	이용률 85%
없음	4.292	6.009	7.297
3개월	3.219	4.507	5.473
6개월	2.146	3.005	3.649

단위: 백만 GPU-hours. 같은 이용률에서 3개월 지연은 첫해 활용시간을 25% 줄인다. 지연 뒤 이용률을 85%로 높여도 즉시 70%로 가동한 경우보다 약 8.9% 적다. 추가 장비 구매만으로 일정 손실을 해소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해석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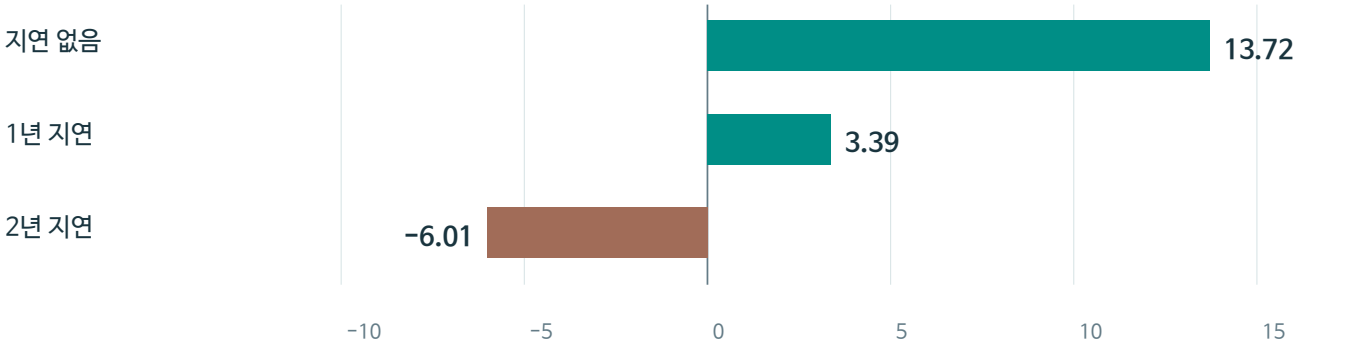
GPU-hours는 같은 장비·업무 안에서만 유용한 관리 지표다. 다른 기종의 성능 환산값이나 한국 전체의 실질 연산능력 추정치가 아니다. 병렬화 손실·작업 품질·대금 회수는 별도로 평가한다.

11 / CASH RECOVERY

공급 유지와 투자수익성 유지는 같은 말이 아니다

설명용 모형 | 초기투자 100, 연말 순현금 30씩 5회, 할인율 10%, 잔존가치 0.

동일한 현금 총액, 다른 순현재가치(NPV)



임의 금액단위

가정	현금 유입 시점	순현재가치
즉시 추진	1~5년 말 각 30	13.72
개시 1년 지연	2~6년 말 각 30	3.39
개시 2년 지연	3~7년 말 각 30	-6.01

투자금은 모든 경우 0년에 100 지급하고, 순현금 30은 운영비·세금·유지투자를 차감한 가정값이다. 합계 150의 현금을 동일하게 받아도 늦게 받으면 현재가치가 줄어든다. 계산식은 Σ [30/(1.10)^t] − 100이다.

실제 계약에서 장비 지급도 늦춰지거나 고객 선급금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반대로 가동을 기다리는 동안 고정비가 발생하거나 경제적 사용기간이 짧아지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 모형에는 그런 추가 효과를 넣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볼 것

핵심은 장비 가격만이 아니라 지급일과 서비스 매출·내부 절감액의 실현일이다. 공급계약 유지 발표 이후에도 이 일정 간격이 좁아지는지 봐야 투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12 / KOREA VALUE CAPTURE

한국의 이익은 GPU 보유량에서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수요자·부품 공급자·서비스 운영자의 역할과 손익 경계를 나눈다.

참여자	경제적 가치의 원천	추가 검증
메모리·부품	확정 주문과 품질·납기 경쟁력	제품별 물량·인도·마진·대금 회수
클라우드 운영사	반복 고객·안정적 서비스·비용 관리	유상 이용률·단가·장기 약정·신용
제조기업	설계·검증·생산 손실의 감소	현장 검증과 순절감액·재현성
연구·공공	연구 접근성과 개발 기간 개선	완료 과제·대기시간·공유 자원 효율

삼성과 SK의 협력 발표는 반도체·제조·AI 서비스에 걸친 관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이 GPU를 산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금액의 국내 메모리 매출이 새로 발생한다고 계산할 수 없다. 고객 측 투자와 공급자 측 주문의 시간·제품 범위를 맞춰야 한다. [6] [7] [9]

제조용 내부 활용은 먼저 공정·제품의 기술적 개선을 검증하고, 그 다음 매출 증가나 비용 절감으로 연결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횟수가 늘었다고 수율·개발시간이 같은 비율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의 학습·검증 협력도 이러한 성과 전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8]

국산 가속기는 “전부 대체”와 “전부 종속” 사이에 있다

11월 8일 NVIDIA·리벨리온·SK텔레콤은 R200 NPU와 NVLink Fusion 기반 인프라 협력을 발표했다. NVLink Fusion은 반맞춤형 연산장치를 NVIDIA 랙 구조와 연결하는 경로다. 칩 선택지가 늘어도 소프트웨어·네트워크 의존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15] [16]

> **선택권의 경제성**
> 동일 품질·지연시간을 만족하는 특정 추론 업무부터 이전비·검증비·운영비를 비교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국산 칩을 대규모 학습의 즉시 대체재로 계산하지 않는다.

13 / CONDITIONAL OUTLOOK

기본 전망은 중단보다 실행 속도의 차별화다

조건부 사업 시나리오. 임의 확률·주가 목표·미공개 주문 추정은 제시하지 않는다.

전개	판단 조건	한국 사업의 의미
기본: 단계별 이행	공급 재확인 유지, 확정 주문 인도, 시설·고객 확보가 순차 진전.	전체 계획은 이어지되 상업가동과 회수 시점은 사업별로 달라짐.
상방: 가동 가속	검수·전력·통합이 앞당겨지고 유상 수요·제조 활용이 빠르게 확대.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초기 연산·현금 또는 검증된 절감액 실현.
하방: 조건 재조정	반복된 납기 변경, 자금·보증조건 악화, 고객 약정 축소가 겹침.	차기 증설 연기와 운전자본·고정비 부담, 일부 용도 재배치.

기본 판단을 지지하는 근거

공급 약속의 연속성에 관한 회사·정부 설명과 실제 계약·고객 확보의 진전은 일괄 중단을 기본값으로 놓기 어렵게 한다. 다만 초기 계약의 성공이 후속 증설 전부의 수익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2] [3] [11] [12]

판단을 뒤집는 구체적인 변화

공식 할당 축소 또는 계약 취소가 확인되면 공급 연속성 판단을 낮춰야 한다. 취소가 없어도 검수 지연과 고객 이탈이 함께 나타나면 경제성 전망을 낮춘다. 반대로 납품만 빨라지고 유휴 장비가 증가하면 상방 증거로 보지 않는다.

> **핵심 결론**
>
> 26만 대 계획의 성패는 CEO 한 사람의 재임 여부보다, 확정된 장비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 가능한 서비스와 반복 가치로 전환되는지에 달려 있다.

14 / MONITORING & DECISION

다음 확인은 사람보다 계약과 가동이다

분기 실적·입고·상용화의 서로 다른 시간축에 맞춰 판단을 갱신한다.

확인 시점	다음 자료	판단 강화 / 약화
11월 18일 KST	NVIDIA 실적발표·컨퍼런스콜 예정. 미국 11/17 PT 기준. [2]	고객 약정·제품 일정 유지 / 구체적 수정·취소
2027년 초	정부가 설명한 잔여 직접 확보분 약 1.4만 규모 입고. [3]	입고 후 검수·사용 전환 / 납기와 가동의 반복 지연
2027년 상반기	NAVER AI 팩토리 매출 반영 계획. [12]	서비스 제공·대금 회수 / 계약과 매출의 시차 확대
2027~2028년	SK의 최초 가동 및 NAVER의 200MW 확장 목표. [9] [11]	단계별 자금·설비·수요 확보 / 목표만 유지되고 집행 지연

위 날짜는 발표된 일정 또는 목표다. 결과가 이미 달성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회사 회계연도와 한국 날짜를 구분하며, 국적별 조달 총량을 개별 사업의 인도·가동 일정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계약

발주·납입·검수·취소 조건

운영

가용시간·품질·병목·이용률

경제성

순단가·운영비·회수·절감액

최종 판단

현재의 합리적 기준은 “26만 대가 사라질 것인가”라는 이분법이 아니다. 공급 약속의 연속성을 인정하면서도, 이행 단계가 앞선 사업과 후속 승인·시설·수요에 더 의존하는 사업을 나눠 평가해야 한다.

15 / SOURCE REGISTER

핵심 주장과 원문 근거를 연결한다

본문의 청록색 출처번호, 자료명, '원문 열기'는 해당 원문에 직접 연결된다.

01. NVIDIA / SEC | Form 8-K: 경영진 변경 원문 열기

2026.11.12 · 공시 · Item 5.02 · 사건 기준일 11.11

02. NVIDIA | CEO 교체 및 사업 연속성 발표 원문 열기

2026.11.12 · 회사 발표 · 임시 CEO·고객 약속·실적 일정

03. 연합뉴스 | 젠슨 황 없는 엔비디아…한국 GPU 공급 약속 유지 원문 열기

2026.11.13 · 장관 설명 인용 보도 · 26만 대·공공 5만 대 진행 상황

04. NVIDIA | 한국 정부·산업계 AI 인프라 협력 원문 열기

2025.10.30 · 회사 계획 · 공공·삼성·SK·현대차·네이버별 GPU 규모

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엔비디아·국내 대표기업 AI 생태계 협력 원문 열기

2025년 협력 발표 · 정부 설명 · 공공·민간 구분과 공동연구 범위

06. NVIDIA | 삼성전자 AI 팩토리 협력 원문 열기

2025.10.30 · 회사 계획 · 제조·설계·디지털 트윈 활용

07. NVIDIA | SK그룹 AI 팩토리 협력 원문 열기

2025.10.30 · 회사 계획 · GPU 서비스·제조 적용·초기 일정

08. NVIDIA | 현대자동차그룹 AI 팩토리 협력 원문 열기

2025.10.30 · 회사 계획 · 5만 GPU·학습·검증·차량 및 로봇 적용

자료 범위: 회사 계획과 계약 발표는 해당 단계의 근거다. 공개된 계약 금액을 같은 기간의 매출·이익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3]은 정부 설명을 인용한 언론 보도이며 공시와 구분한다.

16 / SOURCE REGISTER

계약·기술·가정의 경계를 확인한다

본문의 청록색 출처번호, 자료명, '원문 열기'는 해당 원문에 직접 연결된다.

09. NVIDIA / SK그룹 | AI 팩토리·차세대 메모리 협력 확대 원문 열기

2026.07.24 · 의향서·계획 · 2GW·2027년 최초 가동 목표

10. NVIDIA / NAVER / Brookfield | 한국 AI 팩토리 확장과 조건부 투자 원문 열기

2026.07.24 · 제안·계획 · 자금조달 선결조건·200MW 목표

11. NAVER | 브룩필드 인프라 계약 및 투자 선결조건 충족 원문 열기

2026.10.27 · 회사 발표 · 90억 달러 인프라 계약·SPV·가동 목표

12. NAVER | 2026년 3분기 실적 및 AI 팩토리 고객 확보 원문 열기

2026.11.12 · 회사 발표 · 2조 원 규모 초기 고객·2027년 상반기 매출 계획

13. NVIDIA | DGX B200 User Guide: 시스템 구성·전력 원문 열기

2026.11.14 기준 · 공식 기술문서 · 8 GPU·1,440GB·최대 14.3kW

14. NVIDIA | RTX PRO AI Factory: Components 원문 열기

2026.11.14 기준 · 공식 기술문서 · 96GB GDDR7·8 GPU 노드·구성

15. NVIDIA | NVLink Fusion: 반맞춤형 연산의 랙 통합 원문 열기

2025.05.18 최초 게시 · 기술 해설 · ASIC·CPU 통합·소프트웨어 운영

16. NVIDIA / Rebellions / SKT | NVLink Fusion 기반 한국 AI 인프라 협력 원문 열기

2026.11.08 · 회사 발표 · R200 NPU·랙 통합 협력

자료 범위: 회사 계획과 계약 발표는 해당 단계의 근거다. 공개된 계약 금액을 같은 기간의 매출·이익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3]은 정부 설명을 인용한 언론 보도이며 공시와 구분한다.

17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이용 안내

확인된 사실, 회사 계획, TradeLens 분석과 설명용 가정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시점·대상	2026.11.14 · NVIDIA 경영진 교체와 한국 GPU 공급·사업 실행. 11월 13일까지의 사건·발표를 중심으로 분석.
자료 성격	SEC 공시·회사/정부 발표와 장관 설명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구분. 2025년 초기 계획과 2026년 진행 발표를 분리.
수치 경계	26만 대는 다년 계획. 공공 진행 수치는 B200 기준 설명이며 전체 설치량·GPU 성능 환산으로 사용하지 않음.
설명용 계산	10~12쪽 전력·활용시간·NPV는 명시 가정의 모형. 한국 전체 전력수요·매출·수익률 예측이 아님.
제공 범위	산업·계약 실행·자본효율에 관한 일반 분석. 투자 권유, 목표주가, 개인별 자문 및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은 제공하지 않음.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시장·산업 및 기업의 경제적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